

속관동곡에 나타난 작가의식과 창작기법 고찰*

강재현(충남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3. 창작 기법 |
| 2. 서문을 통해 본 작가의식 | 4. 결론 |

1. 서론

우리 문학사에는 앞선 작품에 대해 동일 작가나 다른 작가가 '續篇'을 제작한 경우가 나타난다. 연구의 방향에 있어서, 동일 작가의 속편은 그 문학적 지향이나 연속성에 의하여 작품을 분석하는 데 일관된 척도를 제시하기가 수월하다. 그에 비하여 다른 작가의 속편은 이러한 분석 기준 마련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편과의 연결 고리를 찾고 그를 통해 속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의 지향이 형성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松江 鄭澈(1536-1593)의 〈關東別曲〉을 頤齋 曹友仁(1561-1625)이 이어 지은 〈續關東曲〉¹⁾이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필자 역시 조우인이 남긴 기록이나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6113).

1) 김영만(「조우인의 가사집 이재영언」, 『어문학』 10집, 한국어문학회, 1963, 78-97쪽)에 의해 조우인의 가사 네 편이 실린 『이재영언』이 소개되었다. 그 이전에 고경식이 『간례』를 통해 〈속관동곡〉을 소개하였지만(「속관동별곡」, 『경희문선』,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62) 완전성이나 가치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김영만이 소개한 작품을 사용한다.

김득신 등의 증언을 통하여 정철의 작품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음은 인정하는 바다. 그렇지만 조우인의 작품이 독자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기존의 〈속관동곡〉 연구에서는 이러한 간과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실정이다.

우선 작품의 명칭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작품의 명칭이 드러나는 출처로는 『이재영언(頤齋永言)』과 『이재집(頤齋集)』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조우인의 가사 모음집 『이재영언』에는 ‘관동속별곡(작품이름)’과 ‘속관동별곡(서문의 작품명)’의 명칭이 혼재되어 있고, 문집 『이재집』에는 ‘속관동곡(서문의 작품명과 문장 중의 명칭)’의 단일 명칭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단일성을 보이는 문집의 것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대다수의 논문이나 자료집에서는 ‘속관동별곡’을 제목으로 사용하여 〈관동별곡〉에 대한 속편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²⁾

다음으로 서문에 대한 분석에서 이러한 양상이 드러난다. 서문이 존재하고 작품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서문의 정확한 해석과 그에서 나타나는 작가의 의식을 살피고 이를 작품에 대입하는 방법이 온당하다. 그런데 조우인의 〈속관동곡〉의 경우는 작자 서문이 간과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서문 전체가 번역, 분석된 결과물이 없다는 데서 확인된다. 현존 『이재영언』과 『이재집』의 자료적 확실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문집인 후자가 강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문집에 실린 〈속관동곡서〉 전체를 분석하지 않은 이유로는 작품의 구조나 사상 쪽으로 연구의 방향이 설정된 까닭도 있겠지만, 전편과의 대비 연구가 방법적으로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었다고 여겨진다. 그 결과 연구자의 작품 해석 방향에 따라 서문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분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속관동곡서〉를 하나의 대상으로 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작품 구조 분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모습은 나타난다. 기행 여정에 대한 전편과의 대비가 여러 연구에서 보인다. 같은 지방을 여행하고 그 소회를 풀어낸 차이를 보이는 분석 방법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렇지만 대비에 가

2) 명칭 부분은 본고의 대상이 아님으로 구체적 논의는 배제하기로 한다.

려져 조우인만의 작가 의식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조우인은 여행 당시에 〈속관동곡〉을 지은 것이 아니다. 그는 노년에 더 이상 관동지방을 여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과거에 자신의 행적을 추억하며 가사 작품으로 그것을 형상화하였다. 그렇다면 〈관동별곡〉을 읽었던 시기로부터도 시간이 흘렀음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대비에 앞서 작품 자체를 조우인의 창작 시간에서 분석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서문을 통하여 작자의식을 밝히고 그것이 어떻게 창작에 구현되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II 장에서는 서문을 정치하게 읽고 분석하고자 한다. 또 이를 통하여 조우인이 밝힌 작가의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III 장에서는 서문에서 드러난 작가의식이 창작에 어떠한 방법으로 관여하고 거기서 드러나는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2. 서문을 통해 본 작가의식

1) 서문의 해석

〈속관동곡〉은 조우인이 관동을 다녀 온 직후에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다. 여정이 끝나고도 오랜 시간이 흐른 노년에 옛일을 회고하며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작품을 대하는 작자의 자세부터 작품에 대한 자신만의 가치 등이 여행 당시의 느낌과는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즉 이 서문은 〈속관동곡〉에 드러내고자 한 자신의 의식을 투영시킨 산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조우인의 작가의식을 살피기 위하여 서문의 정치한 해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우인의 〈속관동곡서〉 전체를 옮겨 보기로 한다.

① 나는 본래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어려서는 산수를 유람하는 집착이 있었다. 중년에 몸은 비록 벼슬길에 매여 있었지만 세속 밖의 아름다운 곳은 꿈 속에서라도 왕래하였다.

② 우연히 정철의 〈관동별곡〉을 얻어 보았는데 다만 가사가 지극히 준일하고 절주가 원랑할 뿐 아니라 이어지는 수천 수백 마디의 말이 감분하고 격양

된 심회를 다 그려낸 진짜 걸작이었다. 거둬 읊어 볼수록 우러러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③ 지리한 비가 개고 초가을이 반이 지날 무렵 홀쩍 세속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생겨 관동을 유람하기로 마음 먹었다. 동으로 흥인문을 나와 적화와 삼부의 승경을 탐방하고 칠담을 살피고 고석에 올랐으며 단발령을 밟고 풍악의 내의 여러 골짜기에 드나드니 족적이 미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었다. 드디어 비로봉 정상에 올라 대륙이 아래로 보이고 큰 바다가 눈에 가득 찼지만 오히려 싫지 않았다. 이내 바닷가를 따라 남행하여 월성에 이르러 돌아왔다.

④ 그때 마음과 눈의 상쾌함이란 낭풍현포(곤륜산, 신선세계)의 유람을 부러워 할 바 아니었다.

⑤ 지금은 늙어 혼몽하니 다시 옛날처럼 유람하고자 한들 가능하겠는가!

⑥ 이에 옛날 발과 눈이 스쳐간 것들을 적어 장가 한편을 만들고 <속관동곡>이라 이름 하였다.

⑦ 군데군데 정철의 노랫말에 상세히 말한 것은 왕왕 빼고 넣지 않았는데 이는 경물의 색채로서 다른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⑧ 노랫말이 완성되어 한 번 보니 비록 정철의 노래에는 만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지만 한가로이 살면서 혼자 있을 때 장단에 맞추어 높이 노래한다면 반드시 답답함을 떨치고 번민을 물리치며 정신을 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백천의 그옥함과 비로봉의 드높음, 구룡의 기이함과 같은 것은 모두 정철이 닿지 못한 바이다. 그러므로 사이사이 과장된 말로 압도하려고 하였으니 죽은 정철이 지각이 있어 안다면 어찌 한번 웃으면서 부러워하지 않으리오! 보는 이들은 부디 망령됨을 용서하고 너무 꾸짖지 말았으면 좋겠다. 매호 늙은이가 쓰다.³⁾

3) 조우인, 『頤齋集』, 「續關東曲序」, “僕本不羈人也 夙有山水遊觀之癖 雖中年汨沒宦途而象外烟霞之勝 未嘗不往來於夢寐中 偶得鄭松江關東別曲者而觀之 非但詞致俊逸節奏圓亮而已 縷縷數千百言 寫盡感憤激昂之懷 眞傑作也 反覆吟詠 益令人歎艷之無已也 屬積雨始晴 初秋已半 不覺有飄然遺世之情 遂決意作關東之遊 東出興仁門 探積禾三釜之勝 窺七潭 登高石 踰斷髮嶺 出入楓嶽內外諸洞壑 足迹之未及者無幾 遂窮毗盧絕頂 平臨大陸 極瞻溟渤而猶未厭 乃遵海而南 至于越松而返焉 爾時心目之快 不羨閨風玄圃之遊 今則耄矣 雖欲重討舊遊 得乎 仍記往日足目之所經過者 作長歌一篇 而名之曰續關東曲 其間鄭詞之所詳道者 則往往刪而不入 蓋以物色之分留者不多故也 詞成自看一過 雖不逮鄭詞之萬一 有時居閑處獨 擊節高詠 則未必不爲遣鬱排悶發舒精神之一助也 至如百川之幽 毗盧之高 九龍之奇 皆松江之所未到 故間爲夸詞以壓之 松江有知 豈不爲之發粲而歎羨耶 覽者恕其狂而略其責可也 年月日梅湖曳麈.”

〈속관동곡서〉는 위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④는 작품의 기반이 되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고 ⑤~⑧은 작품을 짓고 서문을 쓰는 현재의 모습이다.

전반부는 ① 자신의 산수벽, ② 〈관동별곡〉과의 만남, ③ 유람의 여정, ④ 평가로 구조화할 수 있다. 이어지는 후반부는 ⑤ 노년의 처지, ⑥ 〈속관동곡〉 창작, ⑦ 창작 과정, ⑧ 평가로 정리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획을 통해 볼 때,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적 구조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우선 ①과 ⑤의 시간과 성향에 의한 공통점을 보기로 한다. ①은 과거의 시간으로의 소급이다. 이 부분의 중심은 작자의 성향이다. 조우인은 자신이 깊은 산수벽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우인의 성향에 대하여 서는 이식이 「묘지명」에도 언급할 정도다.

젊었을 때 지역 안의 유명한 산수(山水)를 두루 유람하였으며, 만년에는 상산(商山, 상주尙州)에 터를 잡아 매호 정사(梅湖精舍)를 짓고 그로 인하여 자호(自號)를 삼았다. 초의(草衣)와 짚신 차림으로 낚시질에 자취를 감춤으로써 즐거움을 삼았다.⁴⁾

택당의 증언처럼 조우인의 산수벽이 대단하였다. 그러므로 현실적 여건에 의하여 갈 수 없게 될 때는 꿈속에서라도 기필코 찾아갔다고 스스로 언급한 것이다. 시간이 산수벽과 만난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⑤는 현재 자신의 시간이다. ‘늙어 혼몽하다(耄)’라 적은 이유는 梅湖에 은거한 때에 그가 3년의 옥고에서 병을 얻은 이후이기 때문이다.⁵⁾ 그러므로 ①의 시간처럼 훌쩍 떠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하여 전날 발로 밟고 눈으로 본 것들을 하나의 가사 작품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즉 ①과 ⑤는 시간 서술과 산수벽 해소라는 이재의

4) 이 식, 『택당집』 별집 6권, 묘지, 「右副承旨梅湖曹公墓誌銘」并, “少時 徧遊域內名山水 晩卜商山 作梅湖精舍 仍以自號 草衣芒屨 混迹漁釣以爲樂.”

5) 위의 책, “공은 늙어 감옥에 들어가서 형신(刑訊)을 혹독하게 겪어 노쇠함과 질병이 자꾸 심해졌다(公老入牢狴 酷經劓笞 衰疾轉劇).”

성향을 나타내는 공통성을 보이는 것이다.

②와 ⑥에는 시가 작품의 거명을 통한 공통성이 드러난다. 우선 과거의 시간인 ②에서 조우인은 정철의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을 만나게 됨과 그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적어 놓았다. 30여 년 전에 만난 작품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전편이 남긴 여운이 강하게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⑥에서는 이에 대비되는 <속관동곡>을 자신이 지었음을 밝히고 있다. 같은 가사 작품이 동일한 대목에서 의도성을 엿보게 된다.

③과 ⑦은 행위라는 동질성을 지닌다. ③에는 금강산으로 떠나는 행위가 나타난다. ⑦에서는 유람 행위는 그것을 대체하는 집필로 나타난다. 늙은 작자는 다시 금강산으로 유람을 갈 수는 없다. 하지만 작품으로 그 여정 전체를 형상화하며 상상 속에서 유람하고 있는 것이다.

④와 ⑧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에서 동일화되어 있다. ④는 유람 행위에 대한 평가이다. 그 안에는 자신의 젊은 행락에 대한 자긍심이 대표적 감정으로 나타난다. ⑧은 행위의 결과인 <속관동곡>에 대한 평가이다. 그 안에서 작자는 송강과의 대비를 통하여 작품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속관동곡서>는 작자가 전반과 후반을 과거와 창작 당시로 나누어 동일한 구조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 배열은 '시간과 자신의 처지-시가 작품-행위-결과에 대한 평가'의 의도된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정연성에서 조우인이 밝히는 작가의식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런데 「속관동곡서」의 구조적 정연함에서 가장 주요한 내용적 특질은 송강 <관동별곡>과의 친연성이다. 전반에서 송강 작품이 계기가 되어 관동으로의 여정을 시작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후반에서 자신의 작품을 송강의 것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조우인이 지닌 작가의식을 도출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다.

2) 작가의식

서문의 전반부에서 작가의식이 나타나는 것은 여행의 목적이다. 후반에서

는 두 작품의 비교를 통한 <속관동곡>의 가치 창출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두 영역에서 조우인이 어떠한 의식을 지니고 서문을 쓰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송강의 <관동별곡>은 작자의 부임 여정과 연관이 있다. 즉 작품 창작과 여정에 공적 목적이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작품 서두에서 송강은 이 부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⁶⁾ 그런데 서문 ③에서 이재는 <관동별곡>을 읽고 속세를 잊기 위하여 유람을 떠났다고 하여 전혀 다른 목적성을 보인다. 송강의 부임과 이재의 유람은 그 목적이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순수 유람이 원래 목적이었을까? 조우인의 행적을 보면 이 부분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조우인이 남긴 「金剛山諸峯改定名號記」를 통해 보면 그가 금강산을 유람을 시작한 해는 1609년(기유)이다.

나는 기유년 가을부터 이 산에 처음 노닐어서 오륙년간 네 번 정양사에 올랐다.⁷⁾

서문 ③의 가을이라는 표현과 기문의 ‘기유년 가을’이 동일함을 볼 때, 그의 여행이 기유년(1609)에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후로도 그가 여러 번 금강산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1609년의 조우인은 단순한 유람객이 아니었다. 고전번역원의 조우인 연보는 여행이 시작된 1906년에 그가 敬差官으로 관동에 파견되었다고 증언한다.⁸⁾ 이러한 경차관의 임무는 당대 교류한 문인의 기록에서도 증언되고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조우인공이 상목경차관으로서 장차 관동으로 떠나며 전송으로 시를 구하여서 이 읍시를 짓다.⁹⁾

6) 정 철, <관동별곡>, 關關東동 八팔百백리니에 方方面면을 맞드시니 어와 聖성恩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하다.(『松江歌辭』李選 本, 대제각, 1972, 139쪽.)

7) 조우인, 『이재집』 권2, 記, 「金剛山諸峯改定名號記」, “余自己酉秋 始遊茲山 五六年間 四登正陽寺.”

8) 고전번역원, 이재집 해제, 연보 참조.

능파당에서 조여익(우인)과 이별하며 조우인이 올목경차관으로써 능파당에 머물렀다. 같이 잠자리하고 전별하였다.¹⁰⁾

차천로의 시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조우인이 관동에 공적 업무로 갔음이 확인된다. 손기양 역시 조우인이 경차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여 공적 여정을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철이 관찰사로 관동에 간 것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조우인 역시 공무로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③에서 언급한 것처럼 순수 유람 목적으로 여정이 시작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서문의 기록을 보면 단순히 산수벽이 발동하여 속진을 떨치고 길을 나선 것으로 되어 있다.¹¹⁾ 송강의 〈관동별곡〉을 잊겠다는 생각이 창작 배경이라 한다면 공적 업무로서 관동을 두루 살폈다고 하는 편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가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그가 환로에서 겪었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우인은 筆禍 사건으로 광해군에게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속관동곡〉의 기유년은 광해군 원년이다. 그에게 關東부임이 당시에는 좋은 기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광해군에게 반역으로 옥고를 치르고 인조반정에 의해서야 출옥한 늙은 지금에 광해 시대의 환로는 지우고 싶은 부분이었던 것이다. 즉 회상적 작가로서 조우인에게 광해군에게서 받은 벼슬로 관동을 두루 살폈다고 굳이 밝힐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조우인은 금강산에 5-6년 동안 네 번이나 간 것을 하나로 압축하면서 공무였음을 생략한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공적 업무 등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배제하여 작품을 창작한 것이다.

즉 정철과 조우인의 여행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 창작에서의 형상이 차이

9) 차천로, 『五山集』 卷之二, 詩○七言律詩, 〈曹公友仁以桑木敬差官 將歷遍關東 送賤求詩 爲賦此律〉.

10) 손기양, 『磬漢先生文集』 卷之一, 詩○排悶錄, 〈凌波堂別曹汝益 汝益以栗木敬差留凌波堂連夜同枕而別〉.

11) 김득신 역시 이 부분에 대하여 흥이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다(『柏谷集』 冊五, 序, 「關東別曲序」, “曹友仁聽關東別曲 不制飄然遺世之興 遂往遊關東”).

가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우인이 서문 전반부에 밝힌 가사 창작에 임하는 작가의식인 의도적 감춤이다.

서문 후반에서 조우인의 작자의식은 송강과의 대비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심에 있는 문장이 바로 “松江之所未到 故間爲夸詞以壓之 松江有知 豈不爲之發榮而歎羨耶”이다. 특히 본문 중의 ‘壓之’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전의 해석을 보면 ‘정철을 누르다’¹²⁾ 정도로 이 어구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 해석은 서문 전체의 내용적 통일성과 맞지 않는다. 특히 자신의 작품을 송강의 것과 비교하여 ‘비록 송강의 가사에 만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지만(雖不逮鄭詞之萬一)’이라고 이재의 고백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필자도 이 구절이 이재의 謙辭라는 부분은 인정한다. 그래도 이재가 송강의 〈관동별곡〉을 자신의 작품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압지의 구절 역시 같은 맥락 아래서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우선 ‘之’를 송강 혹은 〈관동별곡〉 전체로 보려는 기존 견해에 재고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개 ‘之’가 목적어로 쓰이면,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로 사용된다. 해당 구절은 두 대명사 중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우선 지시대명사로 볼 경우, 대상은 형태를 지니고 앞에 위치하여야 마땅하다. 그런데 해당 구절에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은 ‘松江之所未到’뿐이다. 다음으로 인칭대명사로 볼 경우, 송강이 之에 해당하므로 이는 송강을 과장된 말로 압도하려고 하였다는 뜻이 된다. 여기에 ‘壓’의 의미가 억누르다가 아니라 ‘압도한다’ 정도로 해석된다면 전체적으로 송강을 존경하면서 해학적으로 말하는 일관된 맥락이 유지된다. 그러므로 이재의 언급은, 송강의 여정이나 〈관동별곡〉 전체가 아니라 ‘송강이 닿지 못한 바’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과시하는 부분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자신의 작품이 전

12) 김기영, 「이재 조우인의 〈관동속별곡〉 연구」, 『어문연구』 30집, 어문연구학회, 1998.12, 54쪽, “그를 압도하니”

최규수, 「〈출새곡〉과 〈속관동(별)곡〉의 작품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溫知論叢』 5, 온지학회, 1999.12, 23-46쪽.

체적으로 송강의 것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분에 있어서의 차별화를 강조하기 위한 언사라고 파악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송강이 웃으면서 부러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부분 강조는 바로 앞에 말한 ‘鄭詞之萬一’과 연관이 있다. 정철의 〈관동별곡〉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¹³⁾ 조우인 역시 서문에서 〈관동별곡〉에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자신의 작품을 전편과 달리 보이게 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전편이 있는 경우, 대개 그것을 亞流라 보고 높은 평가를 내리지는 않는다. 그런데 〈속관동곡〉은 세인들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관동별곡〉을 극찬하여 서문을 지었던 김득신의 언급에서도 이를 찾을 수 있다.

조우인이 관동별곡을 듣고 표연히 세속 일을 잊고자 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관동으로 유람가서 속관동별곡을 지었는데 보는 사람들이 칭찬하였다.¹⁴⁾

김득신의 증언에 따르면, 〈속관동곡〉에 대한 世評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조우인이 차별화한 결과였다고 보인다. 전편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속편의 의미는 전혀 없다 즉, 조우인이 만약 이 차별화 전략을 쓰지 않았다면 〈속관동곡〉은 유통되어 이러한 세평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우인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가치를 만들

13) 조우인이 〈출새곡〉을 지은 이유는 族兄인 曹倬(1552~1621)의 권유였다. “臨行拜耻齋兄於私第 公乃酌之酒而與之餞曰 白詞(백광홍의 관서별곡, 필자주)則鳴於關西 鄭詞(정철의 관동별곡)則播於關東 而至於北路則槩無聞焉 古今文人才子之往來朔方者 豈可以一二數而猶然者 茲非風流場之一欠事歟 子其爲我極意構思製爲一長歌 而來以慰老兄孤寂之懷可也 余酒唯唯” 그런데 조탁의 말에서 보면 백광홍과 정철의 가사 작품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노래로 풍류의 현장에서 널리 불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題出塞曲後』)

14) 김득신, 『柏谷集』 冊五, 序, 「關東別曲序」, “(前略) 曹友仁聽關東別曲 不制飄然遺世之興 遂往遊關東 作續關東別曲 見者稱之.” 김득신은 조우인의 작품을 보지는 않고 세평과 이식의 평가만을 옮겨 놓고 자신의 비교 평가는 하지 않았다. “昔李澤堂謂余曰 嶺南文章曹友仁第一 以此(속관동곡)揆之 續別曲必奇而不得見 未知與松江所作別曲何如也.”

기 위하여 차별화 전략을 사용했던 것이며, 송강의 부러움이라는 비교 우위를 확보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후반에 나타난 작가의식인 대비를 통한 차별화 전략이다.

조우인의 두 가지 작가의식인 공적 여정의 변형과 차별화 전략은 고스란히 창작 기법에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하다. 작품에서 어떠한 형태로 작가의식이 투영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창작 기법

1) 압축

〈속관동곡〉작자 의식 두 방향은 우선 ‘압축’이라는 창작 기법으로 나타난다. 조우인의 압축은 다시 두 가지 양상을 보이는데 공적 여행을 가리는 압축이 첫째이고, 여정에 대한 압축이 둘째이다.

먼저 공적 여행을 가리기 위한 압축을 보기로 한다. 전언한 바와 같이 조우인이 금강을 오르게 된 계기는 공무이다. 그럼에도 그는 이러한 공무로서의 모습을 작품에서 철저히 배제하였다. 공무로서 여행에 올랐던 백광홍과 정철의 작품과 비교하면 이러한 양상을 확연히 알 수 있다.

關西名勝地에 王命으로 보니실시 / 行裝을 다사리니 칼흔늑뿐이로다
 延詔門 너달아 모화고기 너머드니 / 歸心이 썩르거니 故鄉을 思念하랴¹⁵⁾
 江湖호에 病병이 곱퍼 竹林独의의 누엇더니
 關東東八峯百백리니에 方方面面을 맞디시니
 어와 聖聖恩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하다¹⁶⁾

두 작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광홍과 정철은 자신들이 맡은 소임에 대하

15) 백광홍, 『岐峯集』 卷之四, 〈關西別曲〉.

16) 정 철, 『송강가사』, 〈관동별곡〉.

여 적극적으로 내용을 피력하고 있다. 그 안에는 임금에 대한 충심이 기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두 작품에서 공적 여정은 작품의 창작 동기이기에 확실히 밝혀야 할 부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우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四仙의 노던 쓴홀 關東이 기라호디 / 塵埃 半生에 歲月이 거의러니
 物外 煙霞에 遠興이 베어나니 / 尋眞 行李는 전나귀 뿐이로다
 武安寺 지나 올라 乘鶴橋 건너 들어 / 塵寰이 점점 멀어 仙境이 가깝던가

첫 시작부터 조우인은 전혀 공적 분위기를 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서두 부분에 脫俗을 나타내는 ‘物外, 煙霞, 仙境’ 등의 시어들이 연이어 제시되는 것은 사적 기행가사처럼 보일 뿐이다. 여기에 작자는 현재 자신이 떠난 서울을 티끌 세상으로 나타내며 그곳을 떠나 선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에 기꺼워한다. 이는 공적 임무 수행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다.

여기서 나아가 조우인은 자신의 여행 목적을 ‘尋眞’이라고 압축해서 말하고 있다. 眞體를 찾아가는 구도자적 형상화를 작자는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유사한 공적 임무를 띤 앞의 두 작가가 ‘王命으로 보니실식’나 ‘方方面면을 맞드시니’처럼 실제 목적을 밝힌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창작 시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관서별곡〉과 〈관동별곡〉은 모두 그 임무를 부여받고 당시에 지어진 작품이다.¹⁷⁾ 그러나 조우인이 이 작품을 지은 것은 광해군에게 모진 옥살이를 받고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이다. 그렇다면 당시의 기분 좋은 부임길의 기억은 이미 사라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도 자신의 옛 기행을 추억하는 작품에서 이러한 내막을 모두 밝힐 수는 없었던 조우인은 자신의 여행을 ‘尋眞’이라는 시어로 압축하여 미화시켰던 것이다.

정철과 조우인이 관동을 향해 간 여정은 약간 다르다. 정철은 여주-원주

17) 「관서별곡 병서」, “乙卯 公爲平安評事 閱歷關防 采摭謠俗 作關西曲”에서 보듯 당대의 작품이다(조우인이 직접 남긴 것은 아니고 그 후손이 문집을 엮으며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기봉집』 권4).

쪽 즉 강원의 아래로 길을 잡은 반면, 조우인은 철원-포천의 윗길로 향함을 알 수 있다. 그 여정 가운데 정철이 ‘연추문, 경희남문’ 등 서울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반면, 분명 ‘흥인문’을 통해 나온 조우인은 압축을 사용하여 관의 모습을 희석하고 있다. 노년의 조우인이 굳이 언급하기 싫은 前主와의 모습을 과감하게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정철과 중복된 여정에 대한 압축이다. 이 부분은 전작인 <관동별곡>과의 겹침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전작과 동일한 여정이라 하더라도 무턱대고 이 과정을 삭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조우인은 아래처럼 환상적 장치를 마련하여 형상화하였다.

山靈도 有情할사 날 올 줄 어이 알아
 一雙 靑鶴을 마주 내어 보낸 말이
 荷衣를 떨치고 半空에 올라 솟아 타고
 長安寺 萬瀑洞을 눈 아래 굽어 보고

위의 구절은 斷髮令에서 금강산을 바라 본 이후의 여정이다. 그런데 그 이후 내금강의 초입에 있는 장안사와 만폭동으로의 이동이 쌍학을 탄 채로 이루어진다. <관동별곡>의 해당부분은 아래와 같다.

백천동 겨티두고 만폭동 드러가니 / 銀ㄱ튼 무지게 옥ㄱ튼 용의소리
 섯돌며 썸논소리 십리의 즈자시니 / 들을제논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철의 금강산 여정은 만폭동에 대한 감상이 그 시작점임을 알 수 있다. 조우인은 이 부분이 정철이 밝힌 물색과 다를 바 없음을 인지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몽환적 방식으로 압축하고 있는 것이다.

조우인이 이와 같이 공적 업무와 여정을 仙的 압축으로 형상화한 것은 현재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의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 결사이다.

三生 煙火를 다 시서 버린 후에 / 早晚에 玉樓 고쳐는 다시 올라 오느라

천상 신선이 세상의 모든 것을 씻고 곧 신선의 세계로 다시 올라 오라고 말한다. 이는 삶이 얼마남지 않은 조우인에게 큰 의미이다. 속세에서 갖은 어려움을 겪은 것보다 후세의 아름다움에 의미를 두고자하는 그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신선이 처음 그에게 ‘人間 煩惱에 네 스실 니것는가 / 玉皇 香案의 노니던 그더러니’라고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조우인은 자신의 여행을 선경으로 가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는 앞으로 닥칠 죽음에 대한 의미부여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세속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공무나 현실 여정을 압축하여 생략했던 것이다.

2) 松江之所不到의 특화

압축과 함께 조우인이 사용한 기법이 ‘松江之所不到’의 특화이다. 백천동, 비로봉, 구룡연 세 곳은 조우인의 <속관동곡>에서 작자가 가장 자신있게 내세운 부분이다. 그런데 『이재집』의 시 가운데 이 세 곳에 대한 작품이 실려 있어 이채롭다. 「속관동곡서」에 명시한 세 곳을 따로 한시로 남기고 있다면 <속관동곡>과 그것들을 대비하였을 때 가사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특화된 세 지명에 대하여 두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압축을 지나 특화된 첫 장소인 백천동의 해당 구절을 보도록 하겠다.

紫煙을 헤치고 百川洞 찾아 드니 / 三十六 洞天에 第一이 여기로다

실제 외금강을 이미 지난 노정이지만 ‘헤치고, 찾아 드니’처럼 구체적 모습은 내금강의 초입인 백천동에서 시작된다. 이재가 금강산의 핵심이라고 보는 시작점이 바로 백천동이었던 것이다. 여기부터 대다수의 구를 사용하여 금강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조우인은 백천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한시를 남기고 있다.

百川洞

특별한 한 동천이 있어 기이한 변화가 만 가지 형상이다. 승가에서는 시왕이 옛적에 머물던 곳이라 칭한다(別一洞天 奇變萬狀 僧家稱爲十王尙住處)

백천동 안에 비밀스러운 별천지	百川洞裡秘壺天
소나무 계수나무 무성하고 담쟁이 엮혔네	松桂陰陰薜荔纏
명왕이 응보 주재한단 말 아니 믿어	不信冥王司報應
신선을 찾아 부여잡고 오르네	行尋仙侶恣攀緣
쏟아지는 거센 폭포는 거친 돌을 쥔고	崩騰亂瀑春擘石
험하고 높은 산꼭대기 보랏빛 안개 위에 솟았네	崔峯危巔插紫烟
한낮에도 서늘하여 석장을 흔드니	日午冷然金策振
못 안에 잠든 독룡을 퍼뜩 깨우네	潭心驚起毒龍眠 ¹⁸⁾

위 시에서 조우인은 신선을 찾아 험한 길을 오르는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는 백천동이 자신을 선경으로 이끌 첫 시작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紫煙'이라는 신선의 색을 여기에 쓰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사와 한시가 모두 같은 시어를 쓰고 있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음으로 가사에서 가장 긴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비로봉을 살피기로 한다.

毘盧 最高頂에 머리를 들어 보니 / 爛銀 濃玉을 뉘어서 새겨 내어
 乾端을 높이 괴어 地軸에 꼬았는고 / 올라 보려 하면 一蹴에 期必할까
 한 걸음 옮기고 또 한 걸음 다시 옮겨 / 從容 漸進하여 絶頂에 올라가니
 茫茫 八紘을 덮었는 이 하늘이오 / 日月星辰은 頭上에 별었으니
 二儀 清濁과 萬品 生成이 / 昭蘇 森列하여 眼底에 들어오니
 어디 또 오르며 볼 것이 무엇고 / 所見이 이만하면 快活타 하리로다

이 비로에 대한 평가를 보면 금강 제일봉에 오른 조우인의 통쾌한 심회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특화를 위해 조우인은 하나의 장치를 더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정철에 대한 언급이다.

松江 浪客은 맞추어 들어오되 / 仙分이 엮듯던가 道骨이 아니런가
 立脚이 굶디 않아 半途에 폐했던가 / 어디 뉘 금관키에 못 올라 보고 만가

18) 조우인, 『이재집』 권1, 詩.

정철이 금강에 들어 왔지만 진정한 금강을 보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남을 말하고 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자신의 금강 등반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비로 정상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조우인은 이 대목에서 정철을 끌어왔을까. 대답은 한시에서 찾을 수 있다.

불지암 지나 비로봉 바라보며	過佛地菴 望毗盧峯
나아가지 못함은 다리가 부실해서가 아니라	不是進步脚未健
다만 세운 뜻에 굳은 다짐 없어서라네	祇緣立志欠堅定
처음에는 몸을 날려 한 달음에 오르려 하였건만	始擬騰身一蹴登
봉우리 앞에 다다르니 나른함이 도리어 일어나네	及到峯前怠反勝
다시오기 어려운데 여기 와서 쉬면서	重來難(缺字)此來休
자꾸만 목을 빼어 산을 바라보네	悵望邦堪頻引領
등산은 오히려 일종의 작은 일이지만	登山猶是一細事
바라기는 평생 착한 가르침을 좇기를	願作平生從善警 19)

비로봉은 해발 1639m로 금강산 일만 이천 봉우리 중 가장 높다. 그렇기 때문에 조우인 역시 쉽게 비로봉에 오르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쉬고 싶은 마음만 생겨 가파른 산봉을 계속 바라보기만 한다. 하지만 조우인은 이렇게 머뭇거리고 쉬려고만 하는 것이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라고 다그치며 마음을 다잡는다. 그러므로 정철이 오르지 못하고 돌아간 것에 대하여 상대적 우위를 언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가사에서 “立脚이 굵디 았아 半途에 폐했던가”하고 질문하는 부분을 한시의 첫 행 “不是進步脚未健”과 대비하면 그가 말한 의지가 견정하지 못한 사람의 실체가 드러난다. 표현의 유사성을 보면 이 존재는 바로 정철이다. 바로 여기가 ‘夸語’인 것이다. 조우인은 송강에 대하여 그가 내금강의 요체를 보지 못하고 산을 내려간 것에 대하여 자량의 말을 하였던 것이다.

여기가 <속관동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자신의 노래 안에서 특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다. 당대의 절창이라던 <관동별곡>과 대비했을 때, 자신의 노래가 더 우수함을 보이기 위한 특화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조우인

19) 조우인, 『이재집』 권1, 시.

이 생의 마지막에 젊은 날의 산수벽을 널리 드날리고 싶었던 부분이 여기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자신의 자랑이던 내금강을 떠나야 한다. 그 마지막에 자리한 곳이 바로 구룡연이다.

玉京 郡帝를 웃으며 하직하고 / 駕風 鞭霆하여 汗漫에 내려 올 때
九龍淵 十二瀑布 暫安에 지나 보니 / 萬二千峰이 蠟屐에 거치내라

비로봉에서 자신의 선분을 확인하였으니 웃으며 마지막 내금강의 품을 떠난다. 구룡연을 지나고 생각하니 자신의 발로 만이천봉을 모두 살피고 온 것이다. 이어지는 ‘시중대’가 동해 바닷가이니 금강은 구룡연에서 끝나는 것이다. 가사에는 구룡연을 언뜻 지났다고 쓰고 있지만 한시를 보면 실체가 그렇지만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구룡연에 배 띄우고 황경중의 시에 차운하다.
계수나무 그림자 너울너울 월궁 향아 춤추는듯
호수의 빛은 아득히 하늘 끝에 닿았네
못의 용은 몰래 숨어 사람의 말소리듣고
물가의 새는 슬피 울어 뱃노래에 화답하네
술상이 파하도록 이르렀음에도
북두칠성 이미 기울어짐 알지 못했네
강의 신도 이 놀이 뛰어남을 기꺼하여
바람의 신을 그치게 하여 물결도 아니 이네

泛九龍淵 次黃直之韻
桂影婆娑舞素娥
湖光渺渺接天際
淵龍穩蟄聞人語
渚鳥哀鳴和棹歌
直到杯盤因狼藉
不知星斗已橫斜
江神亦喜茲遊勝
故戢飛廉不起波

비단 닻줄을 천천히 끌어 맑은 물결 거슬러 오르니
붉은 잎 노란 꽃 양편 언덕이 가을이네
누가 떠나는 기러기를 부려 나그네의 흥취를 더하나
문득 보니 외로운 학이 우리 배와 함께 나네
안개는 넓은 들에 걷히고 강은 가로로 펼쳐있는데
구름 없는 하늘에는 초승달이 떠 있네
사람마다 소동파의 적벽 놀이 부러워하듯
후인들도 우리의 놀이 부러워하리

徐牽錦纜汴清流
赤葉黃花兩岸秋
誰操離鴻添客興
忽看孤鶴掠余舟
烟收大野江橫練
雲掃長空月掛鉤
赤壁仙遊人共羨
後人應復羨茲遊

제목에서 보듯이 조우인은 구룡연에서 선유를 하였다. 물론 비로봉에서 바로 내려온 때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구룡연에도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관동 지역 가운데서도 내금강을 특화시킨 이유는 산수벽에 대한 자부도 있지만 금강에 대한 조우인의 각별한 애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우인은 금강산의 봉우리 이름이 불교에서 따온 것에 儒者로서 모욕을 느끼고 그 이름을 유교식으로 바꾸려 할 정도로 이곳을 사랑하였다.

천하의 명산에 천하의 더러운 이름을 더한 것이니 이는 이 산만의 모욕이 아니라 이보다 더한 욕됨이 없다. 내가 이 분함을 드디어 봉우리마다 이름을 바꾸어 옛 더러움을 한 번에 씻으려 한다.²⁰⁾

금강산의 봉우리 이름이 불교 용어를 사용함을 단순히 안타까워함이 아니라 개명을 시도할 정도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사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금강산을 지목한 것이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이처럼 그의 산수벽과 금강산 애호가 <속관동곡>의 내용적 특화로 나타나고 이를 드러낸 것이 세 곳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세 곳의 특화는 단지 부분의 묘미가 아니라 작자인 조우인이 <속관동곡>에서 말하고자 했던 眞體라 할 것이다.

4. 결론

조우인의 <속관동곡>은 정철의 <관동별곡>을 이어 관동 지방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린 빼어난 작품이다. 그렇지만 전편이라 할 <관동별곡>의 영향력 때문에 그 면모가 쉽게 드러나지 않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속

20) 조우인, 『이재집』 권2, 記, 「金剛山諸峯改定名號記」, “(前略)天下之名山 而加天下之醜名 非但茲山之辱 而天下之辱莫甚焉 余爲是憤焉 乃逐峰改號 一洗舊汚(後略).”

관동곡>을 그 자체로 평가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논의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며 결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조우인이 <속관동곡>에 제시한 작가의식은 의도적 감춤, 전편과의 차별화 두 가지이다. <속관동곡>은 조우인의 여행 당시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꽤 지난 작자 말년에 지어졌다. 즉 회상에 의지한 작품인 것이다. 그런데 조우인의 관동 여행은 사적인 것이 아닌 공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공적 업무를 맡겼던 선주인 광해군과의 관계가 의도적 감춤을 불러왔다. 조우인은 광해군에게 敬差官을 제수받고 관동으로 향했다. 그런데 광해군 시기에 반역의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르고 인조 반정에 의해서 풀려났으니 그 기억이 좋을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의도적으로 이 공적 부분을 감추었던 것이다.

전편 <관동별곡>은 창작된 이후로 절창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런 마당에 속편을 창작하는 작자 입장에서 개성적 부분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우인은 전편과의 차별화 전략을 선택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정철이 가보지 못한 곳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법이었다. 이 전략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당대의 문인들에게 우수하다는 평가를 도출해내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속편에 나타날 작가의식으로서 그 전범이 된다 하겠다.

둘째, 조우인이 자신의 작가의식을 작품에 투영한 창작 기법은 압축과 특화라 하겠다. 우선 조우인은 의도적 감춤을 압축이라는 기법에 담아냈다. <관서별곡>이나 <관동별곡>처럼 공적 업무에 의해 창출된 노래들이 서사에서 임금과의 관계나 여정의 공공성을 나타내는 데 비하여, <속관동곡>은 서사에서 이 부분을 과감히 압축하여 나타냈다. 그러므로 작품 전체에서 이러한 공적 분위기를 일소시켰던 것이다. 또 압축은 차별화 전략에서도 나타난다. 조우인은 정철과의 교집합 부분인 외금강에서 내금강으로 향하는 여정을 승학(乘鶴)으로 압축하여 신선적 분위기로 나타내었다. 이를 통하여 구구한 교집합을 다시 말하지 않는 기교를 보인 것이다.

다음으로 조우인은 내금강을 작품에서 특화시키고 있다. ‘백천동-비로봉-

구룡연'으로 제시된 이곳은 정철이 <관동별곡>에서 언급하지 못한 금강산 부분이다. 조우인은 자신이 이곳을 다녀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또 이 부분이 관동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특화시켜 작품에서 드러냈다. 그래서 이 부분에 誇語라는 어휘로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은 단지 가사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은 세 곳에 대한 한시와의 비교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가 이처럼 내금강을 특화시킨 것은 그의 산수벽도 있지만 금강산에 대한 애정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주제어 : 속관동곡, 조우인, 작가의식, 창작기법, 압축, 특화, 관동별곡, 금강산, 백천봉, 비로봉, 구룡연

〈참고문헌〉

〈자료〉

- 김득신, 『柏谷集』.
 백광홍, 『岐峯集』.
 『松江歌辭』.
 임기중, 『한국가사문학주해 연구』 2, 아세아문화사, 2005.
 조우인, 『頤齋集』.
 ———, 『頤齋永言』.
 중화학술원, 『中文大辭典』.

〈저서〉

- 국어국문학회, 『가사문학연구』, 정음사, 1979.
 김주곤, 『한국 가사와 사상 연구』, 국학자료원, 1998.
 김학성, 『한국고전시가의 연구』, 원광대 출판부, 1980.
 박을수, 『한국시가문학사』, 아세아문화사, 2000.
 서원섭, 『가사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83.
 성호경, 『조선전기시가론』, 새문사, 1988.
 윤석창, 『가사문학개론』, 깊은샘, 1991.
 이동영, 『가사문학논고』, 형설출판사, 1977.
 이상보, 『17세기 가사전집』, 교학연구사, 1987.
 ———, 『한국가사문학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9.
 이우재, 『한국시조가사문학론』, 북조리, 1992.
 임기중, 『한국가사문학연구사』, 이회, 1998.
 전규태, 『가사문학논주』, 명문당, 1988.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77.
 정재호, 『한국가사문학론』, 집문당, 1984.
 ———, 『한국가사문학강독』, 집문당, 1992.

- 정태호, 『한국가사문학의 이해』, 고려대 출판부, 1998.
 조동일, 『16·17세기의 문학사상』, 국어국문학회, 1982.
 조윤제, 『한국시가의 연구』, 을유문화사, 1954.
 최 웅, 『한국고전시학사』, 홍성사, 1986.

〈학위논문〉

- 고경식, 「조이재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63.
 구영완, 「정송강과 조이재 가사문학 연구」, 배재대 석사학위논문, 1993.
 김대권, 「이재 조우인의 가사문학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98.
 김봉선, 「이재 조우인 시가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2003.
 박억만, 「이재 조우인 가사문학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99.
 성재은, 「이재 조우인의 〈속관동별곡〉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이광재, 「이재 조우인 가사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학술논문〉

- 강경호, 「이재 조우인의 가사문학연구-〈출새곡〉과 〈속관동곡〉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11, 2006. 12, 73-100쪽.
 고경식, 「정송강과 조이재의 관계」, 『국어국문학』 64, 국어국문학회, 1974. 9, 92-95쪽.
 김기영, 「이재 조우인의 〈관동속별곡〉 연구」, 『어문연구』 30집, 어문연구학회, 1998. 12, 51-71쪽.
 김영만, 「조우인의 가사집 이재영언」, 『어문학』 10집, 한국어문학회, 1963, 78-97쪽.
 윤호진, 「택당의 이재시 비평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23, 열상고전연구학회, 2006. 6, 133-171쪽.
 이병기, 「관서별곡·관동별곡·관동속별곡의 형태적 고찰」, 『국어문학』 17집, 전북대 국어문학회, 1975. 1, 75-97쪽.
 이재준, 「이재 조우인의 가사에 나타난 공간인식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 42집, 우리어문학회, 2012. 1, 213-245쪽.
- 조창록, 「이재 조우인의 ‘詞’에 대하여」, 『동방한문학』 26, 동방한문학회, 2004. 6, 393-410쪽.
- 최규수, 「〈출새곡〉과 〈속관동(별)곡〉의 작품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溫知論叢』 5, 온지학회, 1999. 12, 23-46쪽.
- 한석수, 「조우인의 가사연구」, 『논문집』 20, 상주농잠전문대, 1981. 12, 199-208쪽.

[Abstract]

A Study on Consciousness of the Writer and Creation Techniques in *Sokgwandonggok*

Gang, Jae-heon

This study reviews consciousness of the writer and creation techniques in '*Sokgwandonggok*' by reviewing it in itself. Firstly, Cho Woo-in has suggested two kinds of consciousness of a writer in '*Sokgwandonggok*'; intentional concealedness and differentiation from the previous work. '*Sokgwandonggok*' has been written not during the his travel but in his later years. In other words, the writer has written this work by counting on his memories. Although his travel in the Gwandong district was a public business instead of private trip, his relationship with the former King Kwanghaegun who assigned the public business on the writer has resulted in intentional concealedness. In addition, Cho Woo-in has differentiated '*Sokgwandonggok*' from the previous work by putting forward the places he has never been. These two strategies were successful and received favorable reviews from the writers of the day.

Secondly, the creation techniques that Cho Woo-in has reflected his consciousness as a writer on his work are summarized into compression and specialization. He has expressed intentional concealedness with the compression method and specialized Naeguemgang in his work. Cho Woo-in has specialized Naeguemgang composed of 'Baekcheondong, Birobong, and Goorongyeon' which was not mentioned by Jeong Cheol in '*Gwandongbyeolgok*'. For that reason, he boasts this part with a word '夸語'. This consciousness of the writer has been expressed not only in the lyrics but also in comparison

with three Chinese poems he wrote. The specialization of Naegeumgang is resulted from his affection for Mt. Geumgang as well as for all natural landscapes.

【Key words】 : *Sokgwandonggok*, Cho Woo-in, the consciousness of the writer, creation techniques, compression, specialization, *Gwandongbyeolgok*, Mt. Geumgang, Baekcheonbong, Birobong, Goorongyoen

강재현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302-74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월평타운아파트 107동 602호

전자우편 : kgodol@naver.com

이 논문은 2013년 7월 2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3년 8월 20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3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